서해안권 관광개발 전략

여 정 태
(余廷泰)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Ⅰ. 서론
Ⅱ. 해안관광지 개발에 대한 이론적 접근
Ⅲ. 서해안권 관광개발현황 및 문제점
Ⅳ. 서해안권 관광개발을 위한 전략
Ⅴ. 결론

Ⅰ. 서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2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에서는 충남권에 속해있는 서해안지역의 아산만지역과 장군지역에 아산항과 장군항을 개발하고, 아산만산업기지와 장군산업기지를 조성하며 이와 연계한 배후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수도권지역과 연결하는 서해안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대전-당진을 연결하는 고속교통망을 구축하여 안면도와 대천 등을 포함하는 해안지역에는 태안해안관광권의 개발을 통하여 해안관광공간 및 체류시설을 조성하고 관광 휴양기능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계획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산만권 광역개발은 오는 2011년까지 천안, 아산, 서산, 태안, 당진 및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 17개 공단 1천4백평을 조성하고 연간 2천5백만톤 처리능력의 항만건설 등을 대상사업으로하여 충남지역에서는 아산, 당진, 석문 등 국가공단과 천흥, 천안3, 인주 등의 8개 공단 9백97만평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항-군산광역개발사업은 대규모 신산업지대조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권을 형성하며 대중국 교류의 전초기지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서해안 공단의 배후도시로 대산, 당진, 장항, 홍성은 집단주거

및 산업서비스지원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며, 생활편익시설의 자족도시로 육성하고 환경시범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관광개발계획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시 수도권에서 2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안면도의 93만평 부지에 숙박, 연수·휴양, 스포츠레저, 노인휴양, 골프장, 마리나센터 시설 등을 유치하는 안면도 국제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금강하구둑 완공으로 형성된 수변공간을 이용한 금강하구둑관광지 조성사업과 아산의 온천휴양관광지개발, 태안해안국립공원 등 환황해권 해양휴양권의 관광벨트조성과 관련한 국제관광여객전용부두 설치, 도비도 및 행담도 관광지개발, 서해안의 요소요소에 산재에 있는 해수욕장의 개발 등 크고 작은 관광지 개발사업들을 조성중이거나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그러므로 공업단지 개발과 배후도시 건설에 의한 유입인구와 서해안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주민의 여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용객 수요에 적합한 여가공간과 시설을 공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오늘날 관광개발은 공업단지 개발과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점차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 오늘날 지역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국토여건과 서해안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종합해 볼 때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이 가지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공업단지개발과 관광개발은 자연환경과 이것을 이용하려는 사람과의 상호간에 민감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잘 조화시켜서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공업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관광개발은 소득의 증가와 여가시간의 증대로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기여를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해안 지역은 이러한 측면과 관계가 깊은 지역으로써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서해안을 개발함에 있어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적 여건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는 개발을 하기 위한 해안관광개발에 필요한 제반이론을 고찰하고, 서해안 주변지역의 관광환경여건을 분석하며, 기존에 수립된 도·시·군 종합개발개발계획과 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계획내용을 검토,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계획집행을 위한 개선방안 및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서해안 지역의 관광개발에 필요한 기본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해안관광지 개발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해안관광지 개념 및 유형

해안관광지의 개념은 해안에서의 자연경관 감상과 함께 동적 위락활동이 주를 이루는 관광지로 이해되고 있다. 즉, 해수욕장이나 마리나시설을 핵으로 다양한 해양위락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숙박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점에서 기존 산악형 관광지와는 구별되고 있는데, 바다 특유의 기상 및 해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용일수가 짧은 것이 단점으로, 이를 극복하고 사업채산성을 높이기 위해 실내스포츠(indoor sports)시설 및 영화관 등의 다양한 위락시설을 배치하고 각종 강습강좌 및 시뮬레이션(simulation)시설, 컨벤션 센터(convention center) 등이 복합적 시설로 설치되기도 한다.

해안관광지 개발은 일반적으로 육지부, 해안지역, 해양지역의 3개소의 공간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육지부 개발이라 해도 바다와 일체가 된 자연경관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매립에 의한 인공섬이나 마리나의 경우에는 인공적인 해안선과 육지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해안역 개발은 마리나(yacht harbour) 및 해수욕장(beach)을 중심으로 레스토랑, 수영장 등의 시설이 주가 되어 이루어진다. 물론 해양스포츠의 발진기지 역할도 하고 낚시나 해양공원의 장으로서도 중요하다. 해상개발은 오래 전부터 소형관광유람선 및 낚싯배로부터 호화 여객선에 의한 세계일주 여행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이용이 있었으나 근래에 들어와서는 선박이라고 하는 시설적인면 뿐만 아니라 이벤트 유치, 다양한 프로그램의 요트활동 등의 소프트웨어적인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안관광지 개발의 형식에 관해서는 크게 해수욕장 중심형, 마리나형, 종합리조트형 등으로 구분 지울 수 있으며 개발방법에 따라 기존 시설의 개수 및 확대형, 집중이용 등의 타 시설을 전용하는 기능전환형, 신규개발형 등의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이용자들의 특성에 따라 당일 이용형, 주말 이용형, 장기 체제형 등으로, 규모에 따라서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형태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구분되고 있는 해안관광지 개발 형태별 분류 및 특징에 관한 사항은 〈표 1〉과 같다.

이들은 국가적인 상황, 지역의 자연적인 조건, 사회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개발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해수욕장 중심형 개발의 형태를 보이는 곳으로는 해운대와 경포대 해수욕장 지구가 있으며, 마리나형은 부산 수영만 지구를, 종합리조트형으로는 충무 도남, 제주 중문관광단지를 들 수 있다.

〈표 1〉 해안관광지의 개발형태

형	태		내 용
시설 형태	해수욕장형		모래사장을 살린 해수욕장을 핵으로 하는 기지
	마 리 나 형		활동적 수면을 살린 마리나를 핵으로 하는 기지활동
	종 합 형		해수욕장과 마리나를 포함한 종합적인 기지
이용 형태	당 일 형		시장에서 1시간권
	주말 이용형		시장에서 2-3시간권
	체 제 형		시장에서 6시간권
규 모 별	소 규 모		동시수용력: 0.1～0.3만인급, 연간이용자: 5～10만인급
	중 규 모		동시수용력: 1～3만인급, 연간이용자: 50만인급
	대 규 모		동시수용력: 3～5만인급, 연간이용자:100만인급
개발방향	신규개발형		새로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수용에 대응
	기능전환형	현 상 유 지	안정된 상태였으나 재투자 등의 어려움으로 현재 상태를 그래로 유지함
		보 수	기존지구의 재개발 규모를 확대하지 않고 변경하거나 보수함
		개수 /확대	기존개발지구의 개수를 꾀함과 동시에 개발지구를 확대하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여 개발
		집 중 이 용	도시부와 도시근교에 있어서 재개발로 위락기능을 회복

2. 해안관광지 개발시 고려사항

1) 공공성을 중시한 개발

해안관광지 개발시에는 관광지내 기존 국·공유지나 해안매립 또는 공유수면해제에 따라 확보된 부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가 아닌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사업방식은 지양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가용할 수 있는 토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제 개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민간기업과 상호협력하여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일회성에 그치고 마는 공영개발의 사업방식보다는 높은 지속적인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해안부의 사유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속적으로 자원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해안관광지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지역민이나 지역관련단체 등에 토지를 임대하여 관광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해안관광지 개발사업은 당해 지역발전 사업으로서 성공적인 지지기

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2) 개방성을 중시한 개발

해안의 사유화에 의한 접근성 제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안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격시킨뒤 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게 하는 건축한계선을 해안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고, 사유지내 건립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1층 평면부는 공공공간화하거나 오픈된 형식의 건축물을 권장토록 하여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제정이 요구된다.

또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수변토지 이용과 연계하여 규제토록 해야 하며,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도 일정간격 이상을 띄우도록 유도함으로써 해안의 과밀정도와 인공화를 예방토록하고 그 간격을 시각통로로 활용하도록 한다.

3) 복합용도를 지향한 개발

관광객과 지역민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해안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주거, 상업, 업무, 문화, 위락 및 공공자원기능이 일체화 된 혼합용도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해안지역의 환경의 특성과 개발유형에 따라 특별수변지구와 일반수변지구로 구분·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

4) 지역민을 중시한 개발

해안관광지내에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제반시설들 즉, 도서관, 전시 및 박물관, 중소규모의 의료시설, 수족관 및 휴식공원 등과 같은 문화·복지시설 등을 도입·개발한다면 외래방문객만을 위한 관광지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지역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지역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5) 특성있는 시설개발

해안관광지내 도입되는 시설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해안지역의 특성과 배후시장의 시장조건을 고려하여 생태관광, 농어촌체험관광, 문화·역사관광, 노인휴양 및 회의산업과 같은 주제를 개발대상지역의 여건에 부합되도록 발전시킨다.

6) 환경특성을 중시한 개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시 해안부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개발지구, 유보지구, 개발금지지구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3. 외국의 사례연구

1) 미국의 미션베이파크(Misson Bay Park)

미션베이파크(Misson Bay Park)는 에이고 근교에 있는 세계 최대의 해안공원이다. 1930년에 마스터 플랜을 작성해 1945년에 간척에 착수했다. 현재도 시설건설사업이 계

속되고 있는 장대하고 거대한 사업으로 개발타입은 임해복합개발형(마리나+파크)이며, 주도적인 사업의 주체는 산디에이고시와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기본적 개발개념는 세계최대의 복합적 수상레크레이션 기지의 개발로서 산디에이고가 자랑하는 레크레이션 지대는 해수욕장, 골프장, 요트하버, 캠프장 등 바다에 관한 시설과 해양수상활동을 위한 장비가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다.

개발경위는 당초에 산디에이고천의 홍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주정부가 투자를 하였는데 1945년에 간척에 착수하여 오늘날은 전지역에 연간 1,400만명, 시월드 입장객은 200만명에 이르고 있다.

2) 프랑스의 뽀르 까마르끄

뽀르까마르그는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의 랑그독 지방에 있으며, 이 지역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7대 리조트 거점개발 프로젝트의 하나이다. 개발유형은 임해복합개발형(마리나+주택)으로 주도적인 사업주체는 남부 아레스루비간상공회의소이며, 기본적 개발개념은 전국민을 위한 리조트 개발로서 이는 랑그독 지방의 7개 리조트지역의 하나로 로뉴하천구역의 일대의 습지대를 리조트로 개발한 것이다.

1965년 정부가 집단시설지구의 개발방침을 결정해 1985년까지 350억프랑이 투자되어 현재에는 지중해 최대의 마리나(4,200척)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마린리조트 기지로 되어 있다. 개발의 경위는 1963년 랑그독 루시옹 연안 리조트 개발을 추진키 위한 특수행정기관을 설치한 후 1965년부터 정부에 의해 개발 투자가 시작되어 프랑스 국내 뿐만아니라 유럽전역에서 높은 평가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지역의 상징으로서 저층의 해변주택군을 배치한 관광개발지역이다.

3) 일본의 天保山 港口村

天保山 港口村은 일본 大阪市 天保山 公園에 있는 것으로 면적은 13.2㎢로 개발주체는 大阪市가 25%, 민간(16개사)이 75%를 출자하여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하여 대관워터프론트개발(주)와 함께 개발하였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생물 전시관을 포함한 마린월드, 항만의 특성을 살린 상가시설, 세계 각국의 음식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식당거리, 특산품 및 의류잡화 등의 쇼핑거리, 수족관, 광장, 지하주차장, 요트, 수상보트, 순환여객선 등을 도입할 계획으로 1988년부터 개발을 착수하여 총 사업비는 약 213억엔을 투자하여 개발하고 있다.

Ⅲ. 서해안권 관광개발의 현황 및 문제점

1. 서해안권 관광개발 여건분석

1) 서해안권 일반현황

서해안권은 서산, 보령, 태안, 홍성, 서천지역으로 일반현황은 인구가 529,282명, 세대

〈표 2〉 서해안권 일반현황(1995)

구 분	인구 (명)	세대수(가구)	면적(㎢)	인구밀도(인/㎢)
충 남	1,844,692	533,852	8,367.7	220.5
서해안권	529,282	150,402	2,455.0	215.6
서 산	140,331	39,655	636.6	220.3
보 령	124,866	35,893	561.2	222.6
태 안	74,035	20,489	470.5	157.4
홍 성	102,823	28,712	422.6	243.3
서 천	87,207	25,653	364.1	239.5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1995.

〈표 3〉 충남 4대 권역별 인구증감 추이(1989-1994)

구 분	1989	1994	89-94증감(명)	연평균증가율(%)
충 남	2,002,684	1,844,692	-157,992	
서해안권	580,151	529,282	-50,869	-1.84
금 강 권	357,502	316,377	-41,125	-2.44
백 제 권	462,453	404,947	-57,506	-2.66
북 부 권	602,578	594,086	-8,492	-0.28

자료: 충남발전연구원, 4대권역별 개발경영사업 연구(안), 1996.

수는 150,402가구, 면적은 2,455㎢, 인구밀도는 215.6인/㎢를 나타내고 있다.

서해안권의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충남의 경우는 1989년 2,002,684명에서 1994년에는 1,844,692명으로 1.64%의 감소율을 나타냈고, 서해안권은 1989년 580,151명에서 1994년 529,282명으로 1.84%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향후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대산공단과 장군공업단지가 건설되어 공업단지의 배후도시가 건설될 경우는 서해안권 인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서해안권 관광시장분석

서해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관광시장분석은 크게 접근성에 의한 이용권과 이용권내의 잠재이용객수에 의해 분석해 볼 수 있다.

서해안권은 관광권역상 전국 5대 관광권중 충청관광권에 속하며 24대 소관광권으로 구분해 볼 때 태안해안권에 속하고 있다. 서

해안권은 접근성에 있어서 교통체계상 1개의 철도망과 국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서해안고속도로 및 각종 계획도로의 완공시 서해안 일대 및 인접도시간의 연계가 더욱 용이하게 될 것이다. 서해안권의 중심지인 서산을 중심으로 접근시간대와 인구규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권역의 중심도시인 서산을 기점으로 주변도시간의 거리는 서울 164.9㎞, 춘천 243.2㎞, 수원 134.6㎞, 충주 141.3㎞, 청주 121. 3㎞, 대전 136.2㎞, 전주 162.7㎞, 천안 89.4㎞, 공주 101.0㎞, 보령 69.5㎞, 홍성 37.1㎞ 등 이다. 따라서 서해안권의 주요 이용시장권인 주요도시를 살펴보면, 본 권역의 북측으로는 인천 및 서울의 수도권과 남측에는 전주 및 이리, 동측으로는 대전광역시와 천안시 및 공주시 등이 입지하고 있다.

장래 서해안권의 광역접근성을 보면, 접근도로는 서산, 홍성, 대천을 중심으로 국도 및 지방도가 분포되어 있으나 급증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에는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나 오는 2001년 완공예정인 서해안고속도로 및 인천-당진-보령-서천으로 이어지는 남북측과 태안-서산-예산-대전으로 이어지는 동서교통축이 형성되면 보다 접근성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 서해안권 관광개발 현황

1) 관광환경 및 관광자원현황

서해안권에 인접하고 있는 광역 주변 관광권은 북쪽에 서울근교권, 동쪽에 공주·부여권, 남쪽에 전주군산권 및 지덕산악권 등 총 4개의 권역과 접해 있다. 서해안권에 분포되어 있는 관광자원현황을 관광자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산악형, 내륙형, 내수면형, 해안형으로 다양하게 구분해 볼 수 있으며 관광자원의 세부내용은 〈표 5〉와 같다.

또한, 자연경관, 풍속, 풍물, 향토색, 자연적 입지특성과 함께 수준 높은 관광자원으로서의 유물로 천연기념물, 유형 무형의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정관리하는 지정문화재는 충청남도과 총 157점, 서해안권은 49점을 보유하며 그 중 국보가 2점, 보

〈표 4〉 접근시간 및 인구규모별 도시현황

구 분		인 구 규 모		
		10만이하	10만 - 50만	50만 이상
이용권	1시간권	서산, 온양, 대천 등	-	-
	2시간권	공주, 평택 등	천안, 수원, 안산, 송탄, 군산, 이리 등	서울, 인천, 대전 등
	3시간권	충주, 제천 등	청주, 성남 등	전주 등

〈표 5〉 서해안권 관광자원 현황

구 분		관 광 자 원	자원유형
산악형	감상 및 탐방형	상왕산, 백화산, 용봉산, 성주산	산악관광지
내륙형	역사문화형	해미읍성, 건지산성, 서산마애삼존불, 성주사지, 최치원유적지, 홍주문, 구백의총, 임존성,홍주아문, 조양문, 윤봉길의사고택	유적, 사적지 기념물
		태주사, 고산사, 부석사	사찰
	도시관광형	한산모시타운, 옥녀봉도시자연공원, 양류정공원	공원, 유원지
	관광 및 휴양형	금강변위락단지, 성주산자연휴양림	관광휴양지
내수면형	호반관광형	대호, 금강하구둑	호수관광지
	수변관광형	풍전, 산정, 오봉, 가화리, 홍림저수지	저수지,하천
해안형	위락 및 휴양형	난지도, 만리포, 학암포, 연포, 무창포, 꽃지, 대천, 원산도, 호도, 춘장대, 월전해수욕장	해수욕장 유원지
	감상 및 탐방형	삼길포, 죽도, 가로림만, 안면도, 원산도	해안자연공원 해상공원

자료: 충청남도, 태안해안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1993에서 재정리.

〈표 6〉 서해안권 인문관광자원 현황

구 분	총계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계	국보	보물	사적명승지	사적	천연기념물	민속자료	무형문화재	계	유형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충 남	648	157	21	70	1	30	12	17	6	208	111	75	10	12	283
서해안권	140	34	2	14	-	6	5	4	3	106	18	15	5	3	65
서 산	36	11	1	6	–	2	–	2	–	25	6	2	–	–	17
보 령	32	7	1	3	–	2	1	–	–	25	5	3	1	–	16
태 안	15	3	–	1	–	–	2	–	–	12	4	3	–	–	5
홍 성	32	6	–	3	–	1	–	1	1	26	2	6	1	3	14
서 천	25	7	–	1	–	1	2	1	2	18	1	1	3	–	13

자료: 충청남도, 태안해안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1993에서 재정리.

물이 15점 등이 있다.

서해안권의 민속문화행사는 서천군의 저산문화제와 길쌈놀이, 보령시의 만세보령문화제와 대천해변제, 서산시의 서산문화제, 태안군의 태안문화제와 황도붕기풍어놀이 등이 있는데 이러한 민속문화행사는 대부분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통하여 주민의 화합과 지역사회의 안녕, 전통문화의 발전과 계승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치뤄지고 있는데, 이 지역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훌륭한 관광자원이나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향토적인 특산물로서는 크게 수공예품, 토속음식, 농수산물 등이 있는데 전통적인 수공예품으로서는 보령의 벼루, 서천의 한산모시, 토속음식은 보령의 우렁찌게, 대하, 꽃게탕, 홍성의 꼬리곰탕 등이 유명하고, 그 밖에 토속주로 서천의 한산소곡주가 있고, 서산 간월도 어리굴젓이 수산가공품으로 유명하다.

2) 서해안권 관광객 이용행태

서해안권은 수도권 관광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당일 및 주말관광을 수용하는 권역으로서 주변의 온양, 도고, 덕산온천 등의 온천관광과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문화 관광지와 연계되어 있으며, 여름철에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곳이다.

서해안권 및 충청남도를 이용하는 방문객의 관광행태적 특성은 당일관광이 39.3%로 가장 많고, 여행동반형태는 친목 및 학교단체관광이 38.5%, 가족단위 31.6%, 이용교통수단은 자가용 승용차가 27.1%, 이용숙박시설은 캠핑이 26.5%, 민박 24.1% 등의 많아 하절기에 관광객이 집중됨을 알 수 있다.

3) 서해안권 관광지 지정 및 개발현황

충청남도는 95년말 현재 지정관광지 14개소, 국립공원 2개소, 도립공원 3개소, 군립공원 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서해안권에는 관

〈표 7〉 서해안권 및 충청남도 관광객 행태

구 분	이 용 행 태 적 특 성
체재기간	①당일(39.3) ②1박2일(32.6) ③3박이상(14.2) ④2박3일(12.9) ⑤기타(1.0)
여행경비	①숙박비(25.9) ②유흥비(23.1) ③식음료비(20.8) ④교통비(13.5) ⑤기타(16.7)
동반형태	①단체(38.5) ②가족(31.6) ③친구(25.2) ④기타(4.7)
교통수단	①자가용/승용차(27.1) ②일반버스(25.8) ③관광버스(19.5) ④고속버스(5.3) ⑤기차(4.2) ⑥기타(18.1)
숙박시설	①캠핑(26.5) ②민박(24.1) ③여관(21.7) ④호텔(16.1) ⑤친구/친척집(10.8)⑥기타(0.8)

주: ( )안은 퍼센트임

자료: 한국관광공사, 전국민 여행 동태조사, 1991.

광진흥법에 의한 지정관광지 6개소, 자연공원법에 의거 지정한 국립공원 1개소를 비롯하여 도립공원 1개소가 있다.

서해안권내 지정관광지는 대천, 무창포, 죽도, 안면도 등 4개소가 있는데 이들 관광지 개발실적은 대천과 무창포해수욕장, 안면도 등이 조성계획 승인 후 개발중에 있다. 그러나 이미 기개발중에 있는 몇 개의 관광지도 도로, 주차장, 화장실, 등 주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등에 편중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위락시설 및 편익시설의 확충에는 열악한 실정이다.

자연공원인 태안해안국립공원(해상제외 면적 38.69㎢)은 학암포, 만리포, 연포, 몽산포, 청포대, 백사장 등 6개의 집단시설지구로 개발되고 있다.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는 서해안권에 호텔이 2개소, 여관 333개소, 여인숙 474개소가 분포되어 있으나 콘도미니엄 및 국민호텔은 전무한 실정이다.

3. 서해안권 관광개발계획의 분석

1) 시·군건설 종합개발계획

시군에서 수립한 시군건설 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보령시는 원산도 관광지개발 등 9개소, 홍성군은 남당 관광지 등 8개소, 태안군은 안면도 관광지 등 6개소, 서천군 금강하구둑 관광지 등 5개소가 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계획으로 수립되어 현재 추진중이거나 앞으로의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다.

2)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에서는 안면도 관광지개발, 아산온천 휴양지 개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해양관광벨트 조성, 배후주거지역의 공원 및 위락공간 확충을 주요 관광개발의 계획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8〉 서해안권 관광지 지정 및 개발현황

구 분	개 소	지 정 장 소 및 면 적
관 광 지(㎢)	5	대천해수욕장(2.15), 무창포(0.31), 죽도(0.06), 안면도(3.09)금강하구둑(0.17)
국립공원(㎢)	1	태안해안국립공원(육지 38.69, 해상 290.30)
도시자연공원 (개소/㎢)	21	서산(9/5.6), 보령(3/0.9), 태안(2/0.1), 서천(7/0.6)
자연 휴양림(㎢)	4	산천(1.43), 성주산(12.75), 용봉산(1.89), 안면도(4.04)
청소년수련시설(㎢)	3	주포(0.1), 수산고(0.002), 청석(0.04)
관 광 농 원 (개소)	17	서산(6), 보령(5), 서천(3), 홍성(1), 태안(2)

자료: 충청남도, 지역경제발전 6개년계획, 1995.

〈표 9〉 시군건설 종합개발계획 내용

시군계획	계 획 내 용		
보 령 시	· 원산도관광지	· 죽도 관광지	· 청천 관광휴양지
	· 호도해수욕장	· 성주산 관광휴양지	· 명대계곡자연휴양림
	· 삽시도 해수욕장	· 보령댐 관광휴양지	· 백제골 자연휴양림
홍 성 군	· 남당 관광지	· 백월산 공원	· 홍양유원지
	· 용봉산 군립공원	· 용봉산 자연휴양림	· 오서산 자연휴양림
	· 동성도예촌	· 홍성온천단지	
태 안 군	· 안면도 관광지	· 방포 황도관광어촌	· 신진도 관광지
	· 가로림만 해양관광지	· 승언리 관광목장	· 안면도 자연휴양림
서 천 군	· 금강하구둑 관광지	· 완포관광지	· 동리관광농원
	· 춘장대 해수욕장	· 신성관광지	

주: 서산시 · 군건설 종합계획은 미수립되어 계획내용에서 제외됨.
자료: 각 시 · 군건설 종합계획, 1992 ~ 2001.

3) 장항-군산 광역권 종합개발계획

장항-군산 광역권 종합개발계획에서는 장군신개발권에는 종합문화여가단지, 익산종합레포츠공원과 내륙문화관광권에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금강하구둑, 금강연안종합개발사업, 김제그린랜드, 벽골재개발사업, 성주산개발, 해양휴양관광권에서는 김제해양종합연구레저단지, 건강랜드, 청라종합레저타운 등의 계획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태안해안권 관광개발기본계획

태안해안권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 태안해안지역은 서산을 거점으로 해양관광지의 입지특성에 따라 특화개발하고, 해양국립공원

〈표 10〉 아산만 광역개발계획 내용

구 분	계 획 내 용
아산만 광역권	·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개발 · 아산온천 휴양관광지 및 국민관광지 개발 ·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양관광벨트 조성 · 배후주거지역의 공원 및 위락공간 확충

자료: 건설교통부, 아산만권 광역개발권역 지정 및 광역개발계획, 1994.

〈표 12〉 장항-군산광역권 종합개발계획 내용

개 발 권	계 획 내 용
장군 신개발권	Joy-Polis여가단지, 종합문화여가단지, 익산종합레포츠공원
내륙문화관광권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금강하구둑, 금강연안종합개발 김제그린랜드, 벽골재개발사업, 성주산개발
해양휴양관광권	김제해양종합연구레져단지, 건강랜드, 청라종합레져타운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장항-군산광역권 종합개발계획, 1995.

내 집단시설지구 기능을 보완하며, 해양휴양, 내륙휴양, 역사문화탐방을 연계하여 개발한다. 보령서천지역은 보령을 임해관광거점으로 해양리조트타운, 금강하구언 연안의 관광지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5) 제2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개발계획

제2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개발계획에서는 서해안 지역을 관광 휴양 위락벨트를 조성하여 가로림만으로부터 안면도를 거쳐 대천, 무창포, 춘장대 해수욕장에 이어지는 해안관광벨트와 동남내륙의 백제문화유적 관광벨

〈표 13〉 태안해안권 관광개발기본계획 내용

구 분	범 위	거 점	개 발 구 상 내 용
태안해안 지 역	태안, 서산, 당진, 홍성, 예산군일부 (2,269.54㎢)	서산	· 해양관광지의 입지적 특성에 따른 특화개발(국제관광위락단지, 국민관광휴양지, 하계휴양촌, 청소년해양수련장 등) · 해양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 기능 보완(자동차야영장등 동적 해양활동) · 해상관광지 연계이용기반 구축(관광유람선 선착장 및 관광항) · 해안휴양, 내륙휴양, 역사문화탐방의 연계관광체계 형성 ·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과 연계하여 교통접근체계개선
보령서천 지 역	보령, 서천 (924.46㎢)	보령	· 대천(보령)을 임해관광거점으로 육성(서해 및 국제관광 중심항 개발, 해양리조트타운 건설) · 해양관광지의 기능특화로 연계관광체계 구축 · 태안해안권과 연결되는 해안관광루트 개설(안면도-대천간 접근성 제고, 해안관광루트 개설) · 금강하구언 연안의 관광위락지 개발

자료: 충청남도, 태안해안권 관광개발기본계획, 1993.

〈표 14〉 충청남도 건설종합개발계획 내용

구 분	내 용
서북부 지역	· 임해형 공업단지 건설하여 신산업지대 형성 (서산, 당진, 아산 지역)
서해안 지역	· 관광 · 휴양 · 위락벨트 조성 (가로림만으로 부터 안면도를 거쳐 대천, 무창포, 춘장대 해수욕장에 이어지는 해안지역) · 서해안 임해공업벨트 조성(서천 · 장항지역)
동남부 지역	· 첨단산업 및 내륙도시형 공업벨트 조성 (성환 · 천안, 연기 지역)
서부내륙 지역	· 선진농업 중심지대 육성 (홍성, 예산, 청양 지역)
동남내륙 지역	· 백제문화유적 관광벨트 조성 (공주, 부여지역) · 대전 연계개발 조성 (논산, 금산 지역)

자료: 충청남도, 제2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개발계획. 1992.

트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4. 서해안권 관광개발의 문제점

1) 해안관광지 개발 접근개념상의 문제

관광지를 개발할 경우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여건과 인문여건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과 주제성을 중심으로 이미지를 부각시켜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해안권 관광지개발의 경우는 현재까지 해안의 지역적 특징보다는 방문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숙박시설만을 중심으로 개발하여 해안관광지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는 해안지역의 특성과 관련한 관광위락시설은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2) 관광지 개발에 있어 역할 분담의 문제

서해안권 관광지 개발 뿐만아니라 전국의 모든 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문제로서 관광지 개발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분담이 되지 않아 관광지 개발이 원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서해안권은 이제 관광개발의 초기 시작단계로서 많은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집행단계에서 누가 개발의 주체가 되고 누가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어 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부족한 실정이다.

3) 관광지 개발시 재원조달 문제

관광개발은 초기에 자본투자가 많은 사업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관광개발에 모든

재원을 조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관광개발은 공공기반시설은 공공부문에서 투자하고 나머지 시설은 민간에서 개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경제성 때문에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개발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대중적인 이용과 모든 관광객들이 형평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부문에 대한 적절한 재원조달대책이 필요하다.

4) 관광개발시 지역주민 참여문제

관광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관광수요 충족과 지역발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관광개발에 의한 지역발전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는데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적 수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서해안권의 관광개발에서는 아직까지 관광개발시 지역주민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서해안 관광개발에 있어서 해결해야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5) 관광지 관리 운영에 관한 문제

관광지는 시설공간의 개발 만큼 중요한 것이 관리 운영의 문제이다. 특히 해안관광지의 경우는 지형적 여건과 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관광지에 비하여 관리 운영측면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해안권의 관광지는 하절기에 집중되는 이용시기의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적정한 관리 운영이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서해안에 입지해 있는 관광지별로 대천해수욕장을 제외하고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이벤트 행사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향후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다.

6) 관광지 비수기 대책에 관한 문제

지금까지 서해안권 관광지 이용행태는 하절기 집중과 당일 경유형의 관광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성수기 이외의 비수기시에는 관광지가 유휴지 상태로 있어 현재의 시설들이 낙후 되거나 개발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해안권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이용행태를 4계절형으로 하고 체류시킬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7) 관광개발시 지역주민의 여가공간에 대한 배려 미흡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된다. 관광지 역시 지역주민에 삶의 공간으로써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여가공간으로 고려되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해안권은 아직까지 지역주민의 여가공간을 고려하여 개발하지는 못하고 있다.

8) 자연경관을 고려치 않은 관광지 개발

해안지역의 경우 생태적 특성상 나타나는 갯벌이나 습지를 인공지반화하여 시설을 개발하거나, 송림 및 특정 수목의 자생지의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서 인공시설물을 설치한 결과 관광객의 이용압력을 감당하지 못한 채 자원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 서해안권의 경우도 일부 해수욕장의 개발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해안경관과 생태계는 서해안권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으로서 이를 파괴되는 문제는 발생치 말아야 하겠다.

Ⅳ. 서해안권 관광개발 전략

1. 입지와 시장성을 고려한 개발

1) 수도권과 대전권 시장을 겨냥한 관광개발

현재 서해안권을 주로 이용하는 방문객은 수도권의 지역주민으로써 앞으로는 서해안권의 주요 관광시장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대전권도 포함이 될 것이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접근성이 양호해 지면 기존의 동해안 방문객들이 서해안지역으로 분산되어 방문할 것이다. 더욱이 현재에도 하절기 동해안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서해안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개발을 해야할 것이다. 특히, 이들 수도권지역의 방문객은 휴가철을 제외하고는 당일의 경유형 관광객으로서 이들을 체류형으로 유인할 수 있는 관광위락시설 공간을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수도권과 대전권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양리조트 휴양단지, 어업체험형 관광지 개발, 가족중심 실버타운 중심의 관광지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공업단지와 배후도시의 지역주민을 위한 관광개발

관광개발은 관광수입에 의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과 주변 인근 도시지역의 일상 여가공간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서해안공업단지가 건설되고, 대산, 홍성, 장항신도시 등이 건설되어 서해안 광역 도시권이 형성될 경우 서해안지역의 관광개발은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공간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서해안권 관광개발은 외래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지로 개발도 필요하지만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을 확보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문화 행사 등도 개최해야 할 것이다.

3) 관광지 및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관광개발

관광개발은 점, 면적 요소에 선적인 요소를 갖추고 입체적인 개발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해안권을 해안관광벨트로 하여 권역내 모든 관광지가 루푸형으로 연담화 되어 숙박형의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되어야 한다. 더욱이 서해안권내의 관광지간 연계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백제문화권, 수도권, 인천해안권, 전주군산권 등 주변의 관광권역을 네트워크화 하는 교통체계를 구성하여 육로와 해상, 비행기 등의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다. 따라서 서해안을 주변지역과 연계하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천-안면도-보령(대천)-군산-남해안을 연결하는 해안유람선 코스를 개발하고 온양, 도고, 덕산, 아산온천과 공주·부여 백제문화관광권과 연계되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자원특성에 따른 개발

1)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관광개발

서해안권은 충남의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서천 등 5개 시 군을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서해안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의 특색은 각양각색이라 하겠다. 어느 지역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안경관이 양호하며 해안형 관광자원이 발달해 있는 반면, 또 다른 지역은 해안을 끼고 있더라도 내륙과 연계된 관광자원이 발달되어 있다. 따라서 비수기를 극복하고 체류형의 관광지, 외지 방문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따라서 서해안의 생활 생산 자연환경적인 다양한 부문과 활동들이 종합되어 뚜렷이 부각되는 그 지역안의 특화된 이미지(image)를 개발하고 관광객들에게 홍보하여 "서해안 관광지" 하면 "다시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생각할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지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바다를 주제로하는 관광개발

서해안권에는 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지로서 대부분의 자연관광자원과 인문관광자원이 바다와 관련되어 이루어져 있다. 특히, 하절기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현상도 바다라는 관광자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해안권에 4계절형의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다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관광휴양시설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이벤트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바다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의 채취와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음식물, 바다고기 수족관 및 박물관, 돌고래공연 등 바다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시설 공간과 이벤트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3) 해안을 경관을 보존하는 관광개발

해안관광지 개발은 해안환경의 생태적 특성과 시설밀도, 그리고 물의 특성 등에 따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해안에 접한 육지부 못지 않게 수역의 이용·관리도 매우 중요하며 수변의 제활동간의 상충과 해안역의 오염에 대해서도 신중이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다른 관광지도 마찬가지이지만 해안관광지의 경우 경관이 파괴되고 바다가 오염될 경우는 관광유인물로서의 매력은 상실되기 때문이다.

서해안권은 대규모 간척지를 공업단지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연 그대로의 해안경관이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은 자연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해안매립지나 경관이 불량한 지역에 시설물을 집중시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유휴화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리조트휴양지로 개발해야 하겠다.

3. 관리운영프로그램을 고려한 관광개발

1) 지역이벤트을 이용한 관광개발

우리가 살고있는 지역은 그 지역 나름대로의 지역문화를 가지고 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풍습과 습관, 문화행사, 토산품, 토속음식 등이 있다. 이러한 지역특성은 그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방문지역을 체류하면서 관광하고 다음에 재방문할 수 있는 관광객 유인 매력물이 된다. 따라서 서해안권에 있는 각 지역은 행정구역이나 지역생활권별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이미지화하고 지역이벤트행사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서해안의 지역적 특성별로 갯벌탐사기행, 바다낚시대회, 시군별 지역문화제, 어업채취체험, 해산물요리대회 등의 이벤트행사를 지역별로 실시해야 하겠다.

2) 제3섹터 중심의 관광개발

관광개발은 초기에 자본투자가 많은 사업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서해안권 전체 관광개발에 투자하여 개발하기에는 자본도 부족하고, 아직까지는 개발실무차원에서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풍부한 자본과 개발실무에 노하우가 있는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해안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방문객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이 성숙되면 공공부문의 역할은 공공에서, 민간의 역할은 민간이, 지역단체나 금융기관의 역할은 단체나 기관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섹터에 의한 관광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관광개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역발전 수단의 한 가지 형태인 관광개발 역시 지역주민의 참여을 배제하고는 이루어 질 수 없다. 관광개발시 필요한 요소중에서 자본과 개발의 노하우를 제외한 토지나 지역의 문화적 특성은 지역주민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개발에 필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관광농원 관광어촌, 관광지내 향토음식점 의 개발은 반드시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관광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해안권의 원할한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어촌관광개발 프로그램인 농어촌 민박마을조성사업(농림수산부), 어촌관광개발사업(수산청) 등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위하여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한 세금감면제도, 사업운영과 관련된 자문과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관광개발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겠다.

Ⅴ. 결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2차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에서는 서해안지역의아산만지역과 장군지역에 아산항 장군항을 개발하고 아산만산업기지, 장군산업기지를 조성하며 이와 연계하여 배후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수도권지역과 연결하는 서해안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대전-당신을 연결하는 고속교통망을 구축하고 안면도와 대천 등을 포함하는 해안지역에는 태안해안관광권의 개발을 통하여 해안관광환경 및 체류시설을 조성하여 관광 휴양기능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계획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업단지 개발과 배후도시 건설에 의한 유입인구와 서해안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주민의 여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에 적합한 여가공간을 공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공업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관광개발은 소득의 증가와 여가시간의 증대로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기여를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따라서 향후 서해안권을 개발함에 있어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적 여건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는 서해안 지역의 관광개발에 기본적 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와 시장성을 고려한 관광개발로, 수도권·대전권시장을 겨냥하여 현재의 당일 경유형 관광지에서 숙박체류형으로 유인할 수 있는 관광위락시설 공간을 개발해야 하고, 공업단지와 배후도시의 지역주민을 위하고 관광지 및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관광개발이 되어야 한다.

둘째, 자원특성에 맞는 관광개발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관광지와 비교하여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관광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바다를 주제로하는 관광개발이 되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해안환경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안의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관광개발이 되어야 한다.

셋째, 관리운영 프로그램의 개발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풍습과 습관, 문화행사, 토산품, 토속음식 등에 따라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역이벤트를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 등이 함께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는 제3섹터 중심의 관광개발과 지방화시대에 적합하도록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관광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서해안권의 관광개발 방안은 서해안권 관광여건과 현황, 향후 계획을 검토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장래 서해안권 관광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방향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미비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서해안권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열린충남

참 고 문 헌

국토개발연구원, 장항-군산광역권 종합개발계획, 1995.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92.

건교부, 아산만권 광역개발권역 지정 및 광역개발계획, 1994.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1995.

충남발전연구원, 4대권역별 개발경영구상(안), 1996.

충청남도, 태안해안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1993.

————, 지역경제발전 6개년계획, 1995.

————, 제2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개발계획, 1992.

한국관광공사, 전국민 여행 동태조사, 1991.